

## 중세 말 도시 반란과 하층민

발표자: 박용진

1. 서론
2. 반란의 전형(典型)
3. 반란의 기록
4. 반란의 심리학
5. 결론

### 1. 서론

반란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일탈 행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일탈 행위들이 대개 개인적 행위에 그치는 데 비해 반란은 집단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엄청난 폭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의 반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기와 장소를 14세기와 15세기초 북부 프랑스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1358년에 일어났던 에티엔 마르셀의 반란과 자크리 반란, 1380년대 초반 북부 프랑스의 도시반란, 그리고 1413년에 일어났던 카보슈 반란을 비롯한 북부 프랑스 도시들의 반란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반란들은 각각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마르셀의 반란은 왕권을 위협한 반란으로서 상층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었던 반면, 비슷한 시기에 농촌에서 일어난 자크리 반란과 1413년 카보슈 반란은 사회의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육업자와 농민에 의해 일어난 반란이었다. 이와는 달리 시기적으로 보아도 중간에 해당하는 1380년대 초반 북부 프랑스 도시들의 반란은 중간 부르주아지가 주도한 반란으로서 조세저항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란들은 사회적으로 상층과 하층, 지리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 반란들 각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특히 파리에서 일어난 세 번의 반란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중세 말에 일어난 반란들의 종합적인 연구이자 다른 연구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이 논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하층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이 중앙집권적 국가의 형성과정과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재정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혹은 사회 경제

적 관점에서 벗어나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즉, 반란을 촉발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반란 이전의 사회가 어떤 불안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란 이후의 사회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세 말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중세 말의 반란은 한편으로는 당시에 누적되어 있던 사회적 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반란의 전형(典型)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전쟁으로 인한 공포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만이나 공포는 소문이나 소동, 또는 말다툼 등으로 인하여 증폭되고 확산된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징세관이나 국왕관료가 살해됨으로써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먼저 중세 말 북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35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반란으로는 농민반란인 자크리 반란과 왕국의 개혁을 요구한 에티엔 마르셀의 반란을 들 수 있다. 자크리 반란은 1358년 5월 28일 생뢰데스랑(St-Leu d'Esserent)이라는 보베지(Beauvaisis)의 한 마을에서 군인들과의 충돌 끝에 그중 9명의 귀족을 살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피카르디 일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폭동의 발발은 그 이후 1380년대 초반에 일어난 여러 반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샤를 5세가 세금의 폐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하자, 콩피에뉴나 생캄탱(St-Quentin), 랑과 같은 피카르디 지방의 도시들에서 “징수인들(exactores)”과 국왕의 관리들이 추방당했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 1일 아침 레알(Les Halles)에서 채소를 파는 한 노파와 상품세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징수 청부인이 사방에서 모여든 군중에게 몰매를 맞아 숨진 사건이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다.<sup>1)</sup>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4천여 명의 군중은 곧 그레브 광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시청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갖가지 무기들, 장검과 단검, 그리고 “납 곤봉(maillet)”을 탈취했다.<sup>2)</sup> 마이요탱의 반란이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1413년에는 왕국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육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파리 시민이 반란, 즉 카보쉬앵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왕국의 개혁을 원하던 파리 자치정부와 파리대학

1) 성백용,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서울대대학원, 2002), 44쪽

2) 한 사면장에 따르면, 이 곤봉들은 3년 전 용병대장 로버트 놀즈에 대한 원정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JJ. 123, no. 120, f. 64 v. 또다른 사면장은 당시 파리에서 여러 직종의 장인들이 부업으로 흔히 납 곤봉을 만들어 팔았음을 증언한다. JJ. 123, no. 210, f. 105 ; JJ. 131, no. 122, f. 75. “마이요탱(Maillotins)”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당시의 기록들은 ‘곤봉 또는 망치를 지닌 자’라는 뜻으로 한결같이 “마이에(Maillots 또는 Maillés)”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Ballade inédite d'Eustache Deschamps>, p. 367. 이후 “마이에”라는 호칭은 “빌렝(vilain)”과 마찬가지로 심한 욕설로 쓰인 듯하다. JJ. 123, no. 285, f. 145 ; JJ. 124, no. 8, f. 9 ; JJ. 126, no. 132, f. 87 ; X 1a 1477, f. 461 v. 성백용, 44쪽.

의 인사들이 삼부회에 개혁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정육업자들은 유력한 부르주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무력 시위를 진행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사태의 주도권이 정육업자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은 파리를 장악하고 왕세자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435년 아미앵에서도 갑작스럽게 반란이 일어났다. 새로이 부르고뉴 공작령에 편입된 아미앵 시민들은 트리스탕 드 폰텐(Tristan de Fontaines)이라는 인물을 공작에게 보내 타이유세의 감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작은 이를 거부했고, 아미앵으로 돌아온 트리스탕은 징세를 발표했다. 이 때 정육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세금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켰다. 모두 무장을 하고 몇몇은 몽둥이를 든 채, 시장인 장 드 콩티(Jehan de Conti)에게 몰려가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sup>3)</sup>

이처럼 소요나 소동이 폭동이나 반란으로 변화하게 되면, 중간, 또는 상층 계급 출신 중에서 우두머리가 선출되고 다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전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한다. 여기에 더하여 구호나 명분,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만다. 반란은 살육의 축제인 셈이다.

1358년 “자크(Jacques)”들은 “군사 경험이 있는(qui avoit veu des guerres)” 멜로 출신의 농민 기욤 카를(Guillaume Karle)이라는 인물을 수령으로 추대했고, 그의 지휘 아래 여러 지도자들이 소규모 부대를 이끌었다.<sup>4)</sup> 봉기의 물결은 우아즈(Oise)강을 따라 내려왔고, 자크들은 귀족들의 성채와 저택을 파괴했다. 사실상 자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카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결국 카를의 의도와는 달리 농민군은 나바르 왕과의 일전 불사를 결의했으나, 나바르 왕의 음모로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고 말았다.

마르셀의 반란의 경우 마르셀이 상인조합장이었으므로 좀 더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르셀의 통제는 제한된 것이었다. 1358년 7월 21일 파리 시민들은 마르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을 37명이나 살해하고 400여명을 감금했다.

1380년대 초 새로 즉위한 샤를 6세는 선왕의 유지에 따라, 그리고 파리 시민의 시위에 굴복하여 모든 조세의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흥분한 군중들은 유대인과 고리대금업자들의 추방을 요구하며 유대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채권 문서를 파괴하며, 징수 청부인들의 모금 상자를 파괴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심지어 일부 군중들은 유대인 자녀들을 강제로 세례시키려 들었고, 이 와중에서 랍비 한 명이 살해되기도 했다.

1413년 카보쉬앵 반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보쉬앵 개혁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육업자들의 관심은 임 개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5월부터 공공의 적으로 지명된

3) Monstrelet, *Chroniques.*, t. VI, p.236-240.

4) Chron. des Valois, p. 71 ; Chron. J. de Venette, p. 76. 한편, 프루아사르는 “그들은 자크 보놈(Jake Bonhomme)라 하는 자를 그들의 왕으로 선출했는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자는 보베지의 클레르몽 출신으로 사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기록한다. Chron. de J. Froissart, t. 5, p. 100. 뤼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장(armes de plaisance)을 보유하고 문서를 발송하며 농민군을 조직하고 통솔한 그의 행적에 비추어 그가 필경 엘리트 농민이었으리라고 추정한다. S. Luce, *La Jacquerie*, p. 77-78 ; M. Dommanget, *La Jacquerie*, p. 44-50 ; A.-M. Cazalis, 1358, *La Jacquerie de Paris*, p. 164. 카를의 표기는 기록에 따라 Cale, Calle, Caillet, Caillot, Karle, Karlot, Charlot, Charles 등으로 다양하다. 성백용, 30쪽.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금되었으며, 6월부터는 평판이 좋지 않았던 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아무도 모르게 처형되었다. 징역업자들의 희생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큰 규모의 반란 이외에 파리 이외의 도시에서 일어난 소규모의 반란, 예를 들어 1435년 아미앵에서 일어난 반란은 우발성과 폭력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오노레 코갱(Honoré Cokin)이라는 자를 우두머리로 내세웠다. 그들은 징세를 발표한 트리스탕을 죽일 듯한 기세로 시청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트리스탕은 친구의 경고를 듣고 이미 도피한 뒤였다... 그 다음 시위대는 보베지(Beauvaisie)의 프레보인 피에르 르 클레르크(Pierre le Clerc)의 집으로 갔다.<sup>5)</sup> 도중에 변호사이자 바이이인 로베르 르 존(Robert le jone)을 발견한 도시 주민들은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 당시 그는 주민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다. 시위대는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의 집에서 18통이나 되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로베르의 조카를 붙잡아 종루에 가뒀다. ... 시위대는 피에르 르 클레르크 역시 살살이 수색한 끝에 붙잡아 시장으로 끌고가 목을 잘랐다. 그리고 그의 조카 역시 마찬가지로였다.”<sup>6)</sup>

결국 이러한 과도한 폭력은 지지세력의 분열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온건한 자들이 개입하여 반란을 진정시키고 주동자를 체포하여 넘기거나 반란자의 재산을 몰수한다. 온건 세력은 국왕이나 제후가 군대를 끌고오기 전에 사태를 진정시키고 관용과 선처를 호소한다. 그러나 국왕이나 제후는 주동자에게 가차없는 처벌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한편,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함으로써 관용을 보여준다. 이로써 국왕은 살육의 축제를 유력자들의 축제로 변화시켜 놓는다.

1358년 마르셀이 유력한 부르주아지인 장 마이야르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뒤이어 마르셀의 측근들이 참수와 효시를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부랴부랴 수도를 빠져나갔다. 그 이후에야 왕세자는 환호 속에 입성했고, 그는 파리 시민에 대해 관용을 호소하고 반란에 연루된 시민과 농민에 대해 사면을 선언했다. 국왕의 측근들과 유력한 부르주아지들은 속속 과거의 지위로 복직되었고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르셀에 동조하여 반란이 일어났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3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반란이나 15세기에 일어났던 반란들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루앙의 유력한 부르주아지들은 폭력이 격화되자 재빨리 세력을 규합하여 시내에 자경대(guet)를 배치하고 난동자들을 검거했다. 이로써 군중들의 맹목적인 폭력은 일단 진정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와 용서를 주선했다. 얼마 뒤 국왕은 루앙에 입성했는데, 입성 직전에 이미 폭동의 주범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루앙시민 전체에 사면령 역시 내려졌다. 국왕은 루앙의 코뮌과 조합의 특권을 폐지하고 바이이를 파견하여 루앙을 국왕의 도시로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마이요탱의 반란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파리의 경우 유력한 부르주아지가 사태를 진정시키지는 않았지만, 국왕의 관료들이 국왕의 입성 이전에 반란

5) 보베지의 프레보였던 이 자는 과도한 착취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다. A. Thierry, *Recueil des monuments inédits.*, t. 2, n° 52

6) Monstrelet, *Chroniques.*, t. VI, p.236-240.

의 주모자들을 체포, 감금하고 그들 중 몇몇을 처형했다. 국왕은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다. 반란 관련자들은 막대한 벌금을 물고 사면되었으며, 파리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상인조합과 조합의 특권이 폐지되었다. 반란에 가담했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운명이었다. 오를레앙과 노르망디의 도시들은 주민 전체가 벌금을 물어야 했고, 아미앵은 국왕관료가 파견되어 자치정부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카보쉬앵 반란 역시 앞선 반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카보쉬앵의 폭력이 장기화되면서 상거래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생업에 지장을 받게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높아졌다. 그러나 카보쉬앵의 지배에 위협과 염증을 느낀 것은 누구보다도 파리의 유력한 부르주아들과 대학 인사들이었다. 이 부르주아들은 오래전부터 비밀 회합을 통해 정육업자들을 제거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들은 시민들을 조직하여 시위를 벌임으로써 카보쉬앵을 축출했다. 예의 파리 시민 전체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으나 주모자들은 처형되거나 추방당했다. 다만 카보쉬앵 반란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부르고뉴 파와 아르마냐 파사이의 지루한 투쟁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전반 프랑스 북부에서 일어난 반란들은 원인과 배경, 촉발요인, 전개과정, 그리고 사후 처리과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시기에 일어난 반란 중에서 이러한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언급된 반란들 역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반란들은 이러한 설명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세말의 반란이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시작되어 왕권의 강화로 귀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 반란의 기록

중세 말 북부 프랑스에서,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한 반란들은 유사한 전개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1350년대 마르셀의 반란 및 이에 동조한 다른 도시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것은 상층 부르주아지였고 여기에 중간과 하층 시민들이 무력을 제공했다. 마르셀 자신이 파리 상인조합장으로서 최상위의 엘리트 부르주아였을 뿐만 아니라, 반란에서 마르셀을 보좌했던 사람들 역시 그와 상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형제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미앵에 있어서도 반란을 주도했던 것은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들로서 아미앵에서 엘리트 부르주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반란들을 기점으로 상층 부르주아지는 반란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리하여 1380년대 초반의 반란들을 주도한 것은 장인들이었다. 마이요탕 반란의 사면장에서는 자치조직인 50인대장과 10인 대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장인들의 형제회는 반조세 운동의 핵심 조직이었다.<sup>7)</sup> 아미앵의 사례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엘리트 부르주아의 이탈이 두드러지

7) 중세 말의 형제회에 관해서는 A. Vauchez, <Les confréries au Moyen Age : esquisse d'un bilan historiographique>, RH, 258(1986), p. 467-77 ; C. Vincent, Les confréries médiévales dans le

는데, 1380년대 초에 아미앵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엘리트 부르주아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최상위 직업군 바로 아래의 직업, 예를 들어 피혁업자나 염색공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태를 주도했다.

15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반란의 양상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주도권 역시 하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1413년 카보쉬앵 반란을 주도했던 것은 비천한 정육업자들이었고, 1435년 아미앵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 역시 정육업자들이었다.<sup>8)</sup> 여기에서는 상층 부르주아는 물론이고 중간 부르주아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반란의 주도세력과 그 양상이 변화했다. 그런데 하나의 반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즉 반란이 진행될수록 상층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대신 폭력성이 강화되며, 급기야 상층 시민들이 사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모든 반란은 재정문제, 특히 세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세 시기의 반란은 모두 세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맨 처음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거지, 부랑자, 실업자와 같은 사회의 최하층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폭동으로 변화하여 살육의 축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폭력의 횡행으로 무질서가 난무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맨 처음 반란을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들보다 상위계층일 것이므로 대개 중간 계층이며, 1413년 카보쉬앵 반란에서 정육업자가 폭력을 주도한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직업에 속하는 -따라서 최하층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반란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무리들은 그야말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직업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시대에 따라 반란의 주도 세력이 달랐듯이 한 반란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참여자들이 달랐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1358년 마르셀의 반란에서 마르셀이 어느 정도까지 반란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반란자들의 구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셀이 무력시위를 주도했던 1357년부터 살해사건이 있었던 1358년 2월까지의 과정에서 파리 시민들은 마르셀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57년 마르셀은 왕세자의 화폐개수에 반대하여 파리의 “모든 장인과 노동자들(menestreaux d'ouvrier)”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모든 시민이 제각기 무장하도록 명했다.”<sup>9)</sup> 그리고 1358년 왕세자의 면전에서 그의 측근을 살해할 때에도 3천여 명의 무장한 “장인들(gens de métiers)”을 이끌고 갔었다. 이러한 표현들로 볼 때, 1358년 2월까지의 상인조합에 속하는 장인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

royaume de France : XIIIe-XVe siècle 참조.

8) 기묘하게도 1382년 파리의 마이요탱 반란을 주도했던 이들이 피혁업자였을 때 아미앵의 반란을 주도했던 자들 역시 피혁업자였듯이, 1413년 파리의 카보쉬앵 반란을 주도했던 이들이 정육업자였고 1435년 아미앵의 봉기를 주도한 것도 정육업자였다. 이러한 기묘한 일치는 중세의 직업이 서열화 되어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중세 도시에서 상층은 직물업, 중간은 피혁업, 그리고 하층은 정육업에 의해 대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Chron. Jean II, t. 1, p. 96. 성백용, 20쪽.

1358년 6월 자크리 반란과 7월 파리 시내에서 있었던 영국인 살해사건에서 보았듯이 마르셀의 영향력은 상인조합장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다.

결국 반란의 주도자와 참여자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전개양상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집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마르셀의 반란이나 카보쉬앵 반란처럼 주도세력의 직업을 통해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자들의 구성을 알기는 힘들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연대기와 사면장 정도가 비교적 자세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셀은 상인조합장으로서 장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1357년 무력시위 이후에는 “하층민(menu peuple)” 또는 “부르주아와 주민들(bourgeois et habitants)”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자크리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그들 대다수는 농민(gens de labour)이었지만, 개중에는 “부유한 이들과 부르주아들”, 정육업자, 통제조인, 목수 등의 장인들과 식료품 상인들, 심지어 하급관리와 사제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1380년대 초반의 반란들 중 루앙에서 일어난 아렐의 반란에 대한 기록에는 “하층민들(menu commun)이 부르주아와 지체 높은 이들(bourgoiz et gens d'estat)에 대항하여 봉기했는데, 이는 상품세를 부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경솔하고 충동된(mal conseilliez) 자들이 위 도시의 몇몇 유력한 부르주아들의 저택으로 몰려가서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했다”고 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유기업자(dignans)와 모직업자, 빈민(gens de poure estofle) 등의 하층민(merdaille)”이었고, 곧이어 “결인들(caimants)”과 “뜨내기들(gens sans aveu)”이 가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0)</sup> 같은 시기에 일어난 마이요탱 반란에 대한 기록에서는 파리의 “하층민들(viri ex abjectiori plebe, gens de bas estat)”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이들은 상인조합장 장 쿨도예(J. Culdoé)로 하여금 정부에 모든 조세의 폐지를 요구하도록 강요했다. 다른 기록에서는 마이요탱 반란에 참가한 자들을 가리켜 “지위와 품행이 천박한(viles statu et viliores moribus)” “하층민(viri ex abjectiori plebe)”이요 “천민들(ignobilis)”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시정잡배(houliers et mauvaiz garnement)”, “약탈자요 불한당들(pillars et coquins)”이라고 일컫는다. 생강탱의 목수 제르베즈 드그랑쥬(Gervaise de Grenges)는 1380년 10월 “시행정관들과 여러 유력자들”에 대한 “하층민들의 집회와 소요(assemblee et commocion du menu commun)”에 가담한 죄과로 베르망두아의 바이이에게 체포되어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2년의 추방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되었다.

1410년대의 반란에서도 역시 동일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카보쉬앵 반란은 “비천한 출신의 몇몇 주도자들(quidam turbati capitis viri, ex ignobilibus proavis)”에 의해 동요된 “하층민(plebe humili)” 또는 “천민들(abjectissimorum virorum)”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내장장수, 정육업자, 박피장이, 모피업자, 칼붙이업자, 그 밖에 잔혹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

10) Juvénal des Ursins, p. 333 ; Chron. normande de P. Cochon, p. 162. 코송은 “몇몇 대상인과 포도주 도매상들(vinetiers)이 이들을 은밀히 지원”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필경 상품세의 부과로 입을 타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반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러운 직업들에 종사하는 가난한 **하층민들**이었다고 기록했다. 이외에도 “신분과 지위가 낮은 자들(*gens de petit estat et de petite condition*)의 소행”이라거나, “마귀떼 같은 **하층민들**(*diabolique assemblée de innombrables menue gent*)”이라는 표현들이 나온다.<sup>11)</sup> 1435년 아미앵의 봉기는 정육업자를 비롯한 “잔혹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런 직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하층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되어 있다.<sup>12)</sup>

이처럼 당대의 표현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주도자와 참여자의 구성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하층민”,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의 태도가 어떻든 “비천하고 무식하며 재산도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380년대 초반 아미앵에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추방당한 장 포사르와 앙리 드 루아는 “재산도 없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home de petite chevance, et qui ne sçavoit lire n’escrire*)”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앙리 드 루아가 읽고 쓸 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조합 대표였는데, 일반적으로 조합 대표로 선출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고 쓸 줄 몰랐다”는 것은 상투적인 어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연대기에 사용된 “비천한 하층민”이라는 용어는 반란을 묘사할 때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란에 등장하는 하층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번 폭력으로부터 도시를 구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는 국왕과 제후, 그리고 상층 부르주아지의 몫이었다. 반란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과도한 폭력은 다수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던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리하여 국왕과 제후의 반격이 시작되고 온건한 부르주아지들은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이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는 평화와 질서, 공휼과 보살핌, 관용 등이었다.

한편 하층민의 폭력에 희생된 자들 역시 상층 부르주아이거나 국왕의 관료로서 질서를 회복할 임무를 지닌 상층 부르주아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은 반란 이전에 악행, 착취와 수탈, 폭압적 통치 등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 도덕을 지니지 못했으므로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가령 마르셀이 살해한 두 명의 장군은 푸아티에 전투에서의 패배의 책임을 져야했던 군사 지도자들이었고, 1380년대 루앙의 반란 당시 약탈 당한 사람들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전임 시장들이었으며,<sup>13)</sup> 1435년 아미앵에서 살해당한 로베르 르 존

11) A. Coville, *Les Cabochiens*, p. 205, n. 1. 성백용, 244쪽.

12) 1358년 에티엔 마르셀의 반란, 1383년 마이요탱 반란, 1413년 카보쉬앵 반란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성백용, 「서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13) 루앙의 반란에 관하여 가장 상세한 기록을 남긴 피에르 코송은 이렇게 약탈을 당한 유력한 부르주아들이 누구보다도 전임 시장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거명하고 있는 시장들 즉 외드 클레망(*Eudes Clément* : 1369-72), 기욤 알로르쥬(*G. Alorge* : 1375-76), 장 르트레필리에(*J. le Treffilier* : 1376-78), 게루 드 마롬(*Guerout de Marromme* : 1380-81) 등은 코핀의 지배 집단을 구성하는 명망 가문 출신으로 “각하(*sire*)”라는 경칭이 따라붙는 이른바 도시 귀족의 일원이었다. 1370년 10월 국왕에 대한 강제 대부를 위해 작성된 217명의 부르주아 명단에서 상위에 올라 있는 이들도 바로 이 부류에 속해 있었다. 이들 중 게루 드 마롬은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 해까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었다.



역시 예전부터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대기의 기록만으로는 반란에 참여한 “하층민”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당시의 기록에 사용된 “하층민”이라는 용어는 “반란에 참가한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우며,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폭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왕은 “평화와 관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기의 기록은 반란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기록자의 도덕적 가치나 고정 관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4. 반란의 심리학

앞서 설명했듯이 반란은 사람들의 불만의 폭발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확대, 진행되다가 온건한 자들에 의해 진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람들의 불만이나 공포는 대개 과중한 세금이나 관료의 폭정 때문에 폭발했지만, 경제적, 재정적 원인만으로 불만이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얼마인가보다는 그것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정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356년 가을 푸아티에 전투에서 패배하자 사람들의 불만은 세금 그 자체보다는 귀족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중세인들은 숫자나 셈에 그다지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sup>14)</sup> 세금의 증가를 따져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금은 많고 적음보다는 부당함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며 이러한 부당함이야말로 불만이 폭발하는 촉발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곧바로 반란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시장이나 광장에서 수군대는 과정에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큰소리나 작은 소동, 또는 때맞춰 그곳을 지나가던 관료나 징세인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하여,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감대는 하나의 사건만으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란이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포와 불안이 어떤 계기를 통해 표출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 불안, 공포 등은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반란이란 기억의 전투이며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불만과 불안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배제의 대상이 될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층민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지배 집단을 배제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지배집단이 하층민과 기억을 공유하고 특정 소수집단을 배제한다면 마녀사냥이나 유태인 학살처럼 기존

14) 엘프리드 크로스비, 『수량화 혁명』, 64-65쪽.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중세 말의 반란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엇보다도 국왕의 통치력 부재로 인한 불안감과 전쟁으로 인한 공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358년 마르셀의 반란과 자크리의 반란은 모두 1356년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일어났다. 전투의 패배 이후 왕국 전체에 팽배해 있던 귀족에 대한 불만과 국왕이 포로로 잡힌 데에 따른 치안 부재 상태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즉 1356년 가을부터 사람들은 이미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귀족에 대한 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국왕의 부재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화폐개수에 대해 마르셀을 비롯한 파리 시민들이 무력시위를 했던 것이다. 사실 화폐개수가 14세기 전반기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르셀을 비롯한 파리 시민의 무력시위는 푸아티에 전투 이후 형성된 전반적인 불만에 기반하고 있으며 화폐개수와 마르셀의 지시는 단지 촉발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크리 반란의 경우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에 대한 실망감에 더하여 그 이후 계속된 용병 기사들의 약탈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크리 반란 자체는 9명의 귀족을 죽이는 우발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삼시간에 피카르디 일대로 확산된 것이다. 즉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 혹은 재정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불안감이라든가 공포와 같은 불만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1380년대 초반의 아렐 반란이나 마이요탱 반란 역시 샤를 5세의 사망 이후 샤를 6세의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으며,<sup>15)</sup> 카보쉬앵 반란 역시 샤를 7세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삼촌들의 대립이 격화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16)</sup> 결국 왕권의 부재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빈번했던 반란의 간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전쟁 또한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전투가 끝나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용병들은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백년전쟁의 휴전기간 중에는 농촌이 약탈당하기 일쑤였다. 공포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백년전쟁이 시작되면서 도시의 자치정부 역시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쟁과 약탈의 공포가 만연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반란의 배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란을 수습할 때에도 중요한 역

---

15) 왕위는 12세의 샤를 6세에게 넘어갔으나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은 왕족 제후들 손에 들어갔다. 부왕은 왕위계승의 원칙에 관한 1374년의 칙령에서 국왕의 성년을 14세로 못박은 뒤 왕세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왕위에 오를 경우에 대비하여 섭정과 후견에 관한 규정을 미리 미리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르면 앙주 공작이 섭정으로서 왕국의 행정과 방어, 관직에 대한 임용과 재정을 관장하고, 어린 국왕과 왕자들의 후견은 부르봉 공작과 부르봉 공작이 맡도록 하며, 그의 원로 총신들로 구성된 참사회의 보좌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왕족 제후들의 권력 투쟁과 전횡을 막고자 했다. *Recueil général*, t. 7, no. 400 ; *Choix de pièces*, t. 1, no. 142.

16) 1392년 샤를 6세의 발병과 유고 이래 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제후들의 대립은 1407년 11월 부르봉 공작 장 상피르(Jean sans Peur)에 의한 오를레앙 공작 루이의 암살을 계기로 당파들 사이의 본격적인 권력 투쟁을 낳았다.

할을 한다. 국왕은 직접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다. 대리인을 보내거나 도시의 유력한 부르주아지를 이용했다. 그리고 소문을 적절히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1382년 루앙에서 두 번째 소요가 일어난 이후 파리의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진행을 본 루앙 시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국왕은 바로 루앙으로 입성하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루앙의 상층 부르주아지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된 이후 국왕이 입성했다. 도시의 상징인 성문을 떼어내 그것을 발판 삼아 밟고 입성했다. 사람들은 성문 밖까지 나와서 “노엘! 국왕 만세!”를 연호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즉 국왕 부재의 불안감은 해소되었다. 한마디로 왕권의 부재로부터 발생한 불안감과 공포는 반란의 원인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는 왕권의 확립으로 해소될 것이었다. 따라서 불안감과 공포가 반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한, 이러한 배경을 해소함으로써 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왕일 수밖에 없었다.

## 5. 결론

중세 말 북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반란들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 반란은 사람들의 불만의 폭발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확대되다가, 온건한 시민들에 의해 진정되었다. 먼저 사람들의 불만은 과중한 세금이나 관료의 폭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러한 경제적, 재정적 원인만으로 불만이 폭발한 것은 아니었다. 세금이 관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양이 아니라 공평성과 사용처였다. 즉 공평하게 부과되고 정확하게 징수되어 적절하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였다. 더욱이 중세인들은 숫자나 셈에 그다지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의 증가를 따져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금은 촉발 요인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왕의 부재에 따른 불안감과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공포였다.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는 소문을 타고 증폭되며, “하층민”들이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반란은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간 계층이 주도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면서 하층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록에는 이들 모두를 “비천하고 무식하며 재산도 없는 하층민”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층민”이란 맹목의 폭력을 사용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층민”이라는 단어는 기록자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층민”이라는 단어는 불안감과 공포를 공유하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의미라면 직업이나 수입, 혹은 사회적 지위에 근거해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는 반란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도시를 구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는 국왕과 제후, 그리고 상층 부르주아지

의 몫이었다. 이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는 평화와 질서, 공훈과 보살핌, 관용 등이었다. 결국 왕권의 부재로부터 오는 불안감과 전쟁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왕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란의 궁극적 결과는 왕권 강화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반란은 불안감과 공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평화와 질서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